

article

a journal of contemporary art
january 2014 issue #30
contains 20% art portrait; 25% art passage; 30% feature



Associations of Everyday Art

저널 경향 《아티클》





정연두 with 루카 핀아이젠. Twilight Seoul. 단채널 비디오. 8' 40". 2012



젠티 코베어슈테트. White Trash, Black Money, New Slaves. 맥주병, 래미네이트, 스텐실. 2010

건전한 충돌, 따스한 우애... 약간의 아쉬움

주혜진 기자

트랜스페어 한국-엔에르베 2011-2013

국립현대미술관 / 2013. 12. 13-2. 16, 대안공간 루프 / 2013. 12. 13-1. 24, 아르코미술관 / 2013. 12. 13-2. 9

독일 중서부의 광공업 도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와 한국 간의 국제 미술 교류 행사인 <트랜스페어 한국-엔에르베(TRANSFER Korea-NRW)>가 국립현대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대안공간 루프에서의 전시를 마지막으로 3년간의 예술 교류 대장정을 갈무리하게 된다. NRW 문화사업국이 주최한 이 프로젝트는 짧은 기간이 아닌 만큼 참여한 인원도 많고, 과정도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양국에서 선발된 14명의 작가들은 상대국가에서 3개월 이상 레지던시 과정을 거치며 서로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자기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 기간에 한국 작가는 독일 비평가를 만나고 독일 작가는 한국 비평가를 만나는 상호비평의 과정을 거쳤으며, 각국 전시기관의 큐레이터들이 마무리 전시를 꾸리기 위해 상대국을 직접 방문해 작가들과 조우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양국 참여 기관에서의 전시로 끝이 났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교류 사업과는 달리 긴 호흡을 가지고 진행된 점, 또한 작가와 비평, 기관 간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점은 이 프로젝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인상적인 대목이다.

국내 참여 기관은 앞서 언급한 3개 기관이다. 독일에서는 본 미술관, 오스트하우스 미술관 하겐,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 등 총 6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기라, 나현, 원성원, 이수경, 정승, 정연두, 함경아 등 7인의 한국 작가를 비롯해, 안 알버스, 루카 핀아이젠, 마누엘 그라프, 에리카 후, 젠티 코베어슈테트, 자샤 폴레, 유르겐 슈탁 등 7인의 독일 작가가 이 프로젝트의 주요 구심점이 되었다.

NRW 문화사업국 디렉터 크리스티안 애쉬(Christian Esch)는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인간적 교류에 무게를 두고 설명했다. 그는 "3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친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수확은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고, 특히 예술가들 간의 교류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 3년간 가족보다 더 자주, 가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교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긍정성 너머에 아쉬움도 다소 발견된다. 우선 최종 전시에서 작가들의

신작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결과'가 아닌 '과정'에 무게를 두어 결과물을 의무 지우지 않았다는 주최 측의 설명은 일리가 있고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과'보다는 '과정'에 방점을 찍고자 했다면, 굳이 '전시'라는 가장 가시적인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국내 3개 미술기관에서 내놓은 전시에서는 엄연히 교류의 한 축으로써 '기획자'가 참여했음에도 특별한 기획력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 한가지 양날의 검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아르코미술관, 대안공간 루프라는 세 기관 모두가 이미 제도화된, 다시 말해 국제교류의 기회나 역량이 충분한데, 기존 공적 수혜를 누려온 기관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이들 기관이 선정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가졌던 집단들에게만 반복해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크리스티안 애쉬 디렉터는 공식 기자회견담회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앞의 세 개의 기관이 적극적으로 접촉해왔고, 차후에 다른 기관이 제안해 온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1990년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이스라엘, 터키, 프랑스 등이 파트너 국가로 참여해 온 <트랜스페어>에의 우리나라의 참여는 표피적이고, 형식적인 문화 교류가 주를 이뤘던 우리 미술계에도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 경험의 성취와 미진함을 자양분 삼아 차후 보다 의미 있는 외부와의 접촉을 넘어서는 것이 참다운 교류일 것이다.